

1년을 마무리하며...

안녕하세요. 올해 프랑스 견습선교사로 1년간 파송된 김덕현입니다. 돌이켜보면 달리는 열차와 같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수많은 생각과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에 1년을 해외에 나가있는 것이 불안할 때도 있었고, 30세의 문턱에서 삶의 목적과 진로에 관련한 많은 걱정과 고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며 편지를 쓰는 지금 이 모든 시간과 경험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과 수많은 경험들 속에서 무엇보다 제게 남은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일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요아서 15장 9절

장로회신학대학교 견습선교사
예수 그리스도의 종 김덕현



청소년부, 깨달은 두가지 - 복음의 상황화와 예수님의 절대화
저는 2019년 1월부터 장로회신학대학교로부터 파송되어 파리선한장로교회(예장통합)에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청소년부를 담당하여 목회하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청소년부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얼핏보면 그때와 하는 사역이 크게 다를 것이 없어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곳의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저는 두가지를 새롭게 배우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는 복음은 문화와 대상에 맞게 모습을 바꾸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나 자란 청소년들은 한국인의 모습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정서와 생각은 프랑스 학생들과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한국 학생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되고 프랑스의 교육문화에 맞추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이들에게는 지적이고 논리적인 복음 전달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면 이들에게는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러한 부분이 학생들에게 바람직하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설교와 예배의 많은 부분들을 성경의 메시지와 배경 설명 그리고 기독교의 교리 설명 등에 할애 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결코 변해서는 안되지만 그 본질을 감싸고 있는 비본질은 '반드시 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번째는 온 세상 어느 곳이나, 누구에게나 예수님은 절대적인 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청소년부의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은 수련회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수련회를 책임지고 인도하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제가 가진 전력을 짜내어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인도했습니다. 사도바울을 주제로 하여 수련회 기간 3일동안 바울의 일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어린아이처럼 사랑하고 따라갔던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시간과 장소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터치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가 터졌습니다. 저는 이 순간에 다시 한번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의 '절대적인 기준이자 답'입니다.**



새로운 눈으로 바라본 파리, 아덴에서 눈을 뜬 바울처럼

신대원 2학년을 마칠 무렵 하나님께서 건축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여러 과정을 거쳐 프랑스로 견습선교를 가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깜짝 놀란 사실들이 있습니다. 먼저 프랑스 파리라든 작은 땅에 온 세계의 다양한 민족이 함께 모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지하철 한칸만 보더라도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서로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불어'라는 한가지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합니다.

파리는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유학생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관광으로 머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파리의 인구 중 순수 프랑스인은 30%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유럽,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자신들이 온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만약 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나중에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때 각 나라에는 아름다운 복음의 물결이 몰아칠 것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멋진가요? 마치 바울이 아덴에서 넓은 세상에 눈을 뜨고 로마로 가기로 결심한 것처럼 이곳에서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됩니다.

유럽과 아프리카, 불어권이 가지는 잠재력

프랑스에 와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 한 가지는 주변 유럽국은 물론이고 특히 아프리카는 프랑스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프랑스가 주변국들을 식민지화 했던 일에서 기인합니다. 이 사실의 옳고 그름을 넘어서 현재 분명한 사실은 불어권 문화는 프랑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엄청난 영향력을 지금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비전트립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그 때 이 사실은 저에게 아주 분명한 확신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와 주변 유럽국, 아프리카는 불어권이라는 울타리로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1세기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한 울타리로 묶었기 때문에 복음의 파급력이 어마어마했던 것처럼, 현재 불어권에는 동일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열방의 복음화에 있어서 불어권이 중요한 열쇠임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 한 지금, 이후의 계획

저는 12월 1일(주일) 공식적으로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바로 NIBC 건축회사에서 3개월 동안 인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한동대 졸업생들이 베트남 사업을 기반으로 기독교 정신으로 일군 기업입니다. 저는 선교지 학교를 증축하는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어 태국 우본으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신실하게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저희를 인도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역 마무리 보고를 마치며 그 간 물질로, 기도로 후원해주신 모든 후원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